

LG CNS, 고용노동부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

1987년 창립 이래 무분규 사업장 유지

국내외 근무현장에서 CEO 현장 소통 프로그램 시행

LG CNS는 상호 존중과 대화, 협력을 바탕으로 한 모범적 노사문화를 실천한 공로를 인정받아 고용노동부가 주관하는 '2025년 노사문화 우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7일 밝혔다.

1996년부터 운영된 '노사문화 우수기업'은 우수한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기업을 선정·지원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상생과 협력에 기반을 둔 노사문화를 사회 저변으로 확산해 나가는 것이 목적이다. 올해는 전국 140개 기업이 신청해 △중소기업 19개사 △대기업 13개사 △공공기관 8개사 등 총 40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LG CNS는 1987년 창립 이후 모범적인 노사문화를 통해 38년간 무분규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다. LG CNS 임직원들이 이처럼 오랜 시간 한마음으로 뭉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상호존중과 소통이다.

특히 CEO와 경영진들은 직원들과의 현장 대면 소통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다. 사원 대표들도 경영진들과 정기·비정기 노경협의회를 통해 긴밀히 소통하며 처우와 복지, 인사제도 개선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있다. LG CNS 사원 대표들은 전체 구성원들의 직접·무기명·비밀 투표를 통해 선별된다.

이 같은 소통 과정을 거쳐 LG CNS는 근무시간이 아닌 기술 역량 수준을 보상에 반영하는 역량기반 인사제도를 도입했다. 안식월 휴가제 도입, 중식비 인상, 출산 선물 확대, 고급 리조트 지원 확대 등 복지 수준 또한 높여 나가고 있다. LG CNS는 근무 방식에도 변화를 줬다. 모든 구성원이 의무적으로 사무실에 출근해 근무시간을 채워야 하는 획일적인 제도에서 벗어나 성과 중심의 자율책임근무제를 시행 중이다.

LG CNS는 직원들의 경력 개발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구성원들이 자신의 커리어 성장을 위해 스스로 본인이 희망하는 조직과 직무를 찾아 지원하는 '사내공모제도-잡포스팅(My Career Up)'제도가 활성화돼 있다.

또한 현장의 다양한 직무 전문가들이 채용과 평가 등 주요한 인사 결정에 직접 활발히 참여하는 문화가 정착돼 있다. 대표적으로 채용 시 사내 전문가들이 합격·불합격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바-레이저(Bar-Raiser)' 면접 방식을 운영한다.

또한 구성원들의 개인 생애주기에 맞춰 가족까지 챙기는 피플케어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다. LG CNS는 초등학생 자녀 케어 프로그램으로 사생대회, 가족 피크닉 행사를 진행한다. 자녀가 중고등학생인 경우 유명 입시 전문 컨설턴트를 초청해 평소 접하기 힘든 대입 정보를 제공하고 학업 성취도 향상 노하우를 전달하는 '입시 토크(TALK), 널 대입해'를 운영 중이며, 직원들과 부모님이 함께 LG아트센터에서 유명 공연을 관람하는 '문화 산책'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이외에도 LG CNS는 사회에 공헌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청소년들과 IT 교육에 소외된 장애인, 도서벽지학교 학생들이 IT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AI 지니어스'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LG CNS는 인재 양성과 지역별 디지털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정보문화 유공 정부포상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사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행복마루'를 통해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전 직원의 90% 이상이 장애인으로 구성된 행복마루는 지난해 '장애인 고용 우수 사업주', '차별 없는 일터 조성 우수 사업장' 등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모범적 사례로 인정받았다. 지난 2023년에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7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한편,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지난해 AI, 클라우드 등 신기술 분야 인재를 집중 채용한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한 일자리 대상 고용노동부 장관상,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고용노동부가 후원하는 인적자원개발대상을 수상한데 이어 연말에 얻은 성과다.

LG CNS 관계자는 "LG CNS는 활발한 소통을 바탕으로 노사 간 칸막이 없는 문화를 만들고, 사회적 책임까지 다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며 "이번 노사문화 우수기업 선정은 그간의 노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앞으로도 모범적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네이버, 차세대 격전 준비 ... “XR 콘텐츠 생태계 구축”

✓ 미디어 플랫폼 테크 포럼

웹, 모바일 변화 살아남는 저력
5년 전부터 차세대 플랫폼 대비
스트리밍 실험 통해 경험 쌓아

신형 XR 내놓는 삼성과 협업
“홀로그램 등 신기술도 개발 중”

네이버가 확장현실(XR) 콘텐츠 시장에 본격 참전한다. 삼성전자가 연내 선보일 첫 XR 기기 ‘프로젝트 무한’에 담은 콘텐츠를 생산하는 것이 우선 목표다. 웹(컴퓨터)에서 모바일(스마트폰)로의 전환 과정에서 성공적으로 살아남은 네이버가 차세대 하드웨어 시장에서도 소프트웨어와 콘텐츠를 중심으로 생존력을 증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네이버는 경기 성남시 네이버 사옥에서 지난 16일 ‘이머시브 미디어 플랫폼 테크 포럼’을 열었다. 언론을 대상으로 XR 플랫폼 전략과 차세대 미디어 기술을 공개하기 위한 자리다. 17일 네이버 관계자는 “생성형 인공지능(AI)과 실시간 3차원(3D) 렌더링 기술을 기반으로 가상현실(VR), 증강현실(AR), 혼합현실(MR)을 아우르는 XR 콘텐츠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네이버의 가상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 비전·모션스테이지에서 광학식 슈트를 착용한 직원이 3차원(3D) 애니메이션 구현을 시연하고 있다. 스튜디오에 설치된 적외선 카메라와 슈트에 장착된 전자 센서가 손가락 움직임과 얼굴 표정까지 정밀하게 포착해 캐릭터를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 네이버 제공

스마트글라스와 VR 헤드셋으로 대표되는 XR 기기는 스마트폰을 잇는 새로운 하드웨어 플랫폼으로 부상하고 있다. 메타는 2019년 첫 VR 헤드셋 ‘퀘스트’를 출시했다. 당시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VR 헤드셋을 ‘차세대 컴퓨팅 플랫폼’이라고 선언했다. 지난해 10월에는 AI 기능을 적용한 ‘퀘스트3S’를 선보였다.

구글은 삼성전자, 젠슨몬스터와 협업해 안드로이드 기반 XR 기기를 내놓을 예정이다. 삼성은 구글, 퀄컴과 협업한 또 다른 XR 제품도 준비 중이다.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은 9일 뉴욕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연내 XR 헤드셋

출시를 목표로 완성도를 높이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삼성의 신제품 출시에 발맞춰 XR 기반의 콘텐츠 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오한기 네이버 리얼타임 엔진 스튜디오 리더는 “네이버 스트리밍 플랫폼 ‘치지직’을 중심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할 것”이라며 “네이버가 보유한 고품질 콘텐츠가 원활히 구현될 수 있도록 현재 여러 글로벌 기업과 협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XR 콘텐츠 시장엔 메타, 구글 등 하드웨어 제조사뿐만 아니라 유니티 같은 게임 엔진 개발사도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포천비즈니스인

글로벌 XR 시장 규모
(단위: 억달러)



사이트는 글로벌 XR 시장 규모가 2024년 1840억달러에서 2032년 1조6250억달러로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네이버는 영상 소비와 제작의 패러다임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는 판단 아래 새로운 방식의 콘텐츠 제작을 준비해왔다. 2020년부터 몰입형 미디어 기술 개발에 착수해 2022년 ‘이머시브 미디어 랩’을 설립했다. 지난 3월엔 XR 콘텐츠 제작 전용 스튜디오 ‘비전·모션스테이지’를 선보였다. 이 같은 인프라 구축을 바탕으로 치지직의 다양한 창작자와 협업해 XR 콘텐츠 생태계를 만들어가고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몰입형 오디오 등을 결합해 홀로그램처럼 실감 나는 콘텐츠 경험을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 중”이라고 말했다. 오리더는 “실제 인물에서 가상 캐릭터로, 일방향 콘텐츠에서 상호 몰입형 콘텐츠로, 평면 영상에서 XR로 미디어 경험이 빠르게 진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영총 기자

폰으로 옷장 비추자 “오늘 날씨엔 이 옷”... ‘앰비언트 AI’ 선도

〈일상에 녹아들어 상황에 맞게 작동하는 AI〉

AI 대전환으로 새롭게 도약하라 ① 삼성전자

“러닝 페이스를 보니 편안한 장거리 러닝을 즐기시는군요. 운동화는 ‘호카 클리프론9’ 모델이 잘 맞을 것 같아요.”

지난 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5’ 행사장에는 폴더블 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플립7’에 탑재된 다양한 인공지능(AI) 기능을 체험하려는 전 세계 관람객으로 가득 붐볐다. 이 중 관람객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공간은 폴드7의 접은 두 개 화면을 동시에 활용해 AI를 시연하는 곳이었다.

갤럭시Z 폴드·플립7 속에 구현 이미지·음성 등 정보 통합인식 운동 계획 수립 등 능동적 작동

각 사업부 ‘혁신 사무국’ 설치 ‘AI 크루’ 300명이 과제 발굴 자체 생성형 모델 개발도 병행

■ 삼성 관계자가 개인 운동 정보가 기록된 ‘삼성 헬스’와 해외 운동화 구매 사이트를 동시에 띄운 뒤 “내 러닝 페이스를 보고 운동화를 추천해줘”라고 말하자 AI는 순식간에 3개 운동화 모델과 가격을 비교해 추천했다. 이어 각 제품의 장단점을 삼성 노트에 정리해 달라고 하자 AI는 텍스트로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저장했다. 일상생활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챗GPT’와 같은 채팅형 AI를 넘은 ‘멀티모달 AI’의 모습으로, 이미지·음성·영상 등 다양한 유형의 정보를 통합해 인식하는 AI 상용화가 머지않았음을 실감케 했다.

삼성전자가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을 앞세워 갈수록 치열해지는 글로벌 AI 시장 주도권을 잡기 위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등 다양한 제품군의 AI 기술 적용을 고도화하는 동시에 사내 전반에 AI 활용 문화를 확고히 정착시켜 글로벌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와 대등한 수준의 AI 역량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17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사용자가 일일이 명령하지 않아도 사용자의 의도와 사용 패턴을 파악해 먼저 도움을 주는 개인화된 AI를 개발 중이다. 올 초 출시한 스마트폰 ‘갤럭시 S25’에서 선보인 ‘나우 브리프’가 대표적이다. 나우 브리프는 사용자의 생활 패턴을 학습해



9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삼성전자 ‘갤럭시 언팩 2025’에서 한 관람객이 폴더블폰 신제품 ‘갤럭시 Z 폴드7’을 살펴보고 있다. 썬앤픽



생성형 AI가 탑재된 ‘갤럭시 워치8’.

운동 계획이나 여행 일정 등에 맞는 정보를 미리 알려준다. 삼성전자와 런던대 공동 연구에 따르면 AI 사용자의 45%는 이미 음성 명령을 자주 사용하고 있으며, 60%는 ‘스마트폰에 내 습관을 파악해서 알아서 해줬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삼성전자의 지향점은 사용자의 일상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작동하는 AI, 일명 ‘앰비언트



인도에서 삼성전자 ‘비스포크 AI 가전’ 기능을 한 소비자가 체험하고 있다.

트 인텔리전스’다. 가령 옷장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보여주며 “오늘 날씨에 맞는 옷 추천해줘”라고 말하면, AI가 날씨 정보와 옷들을 함께 분석해 답변해주는 식이다. 현재 갤럭시 AI의 ‘비전 AI’가 이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박지선 M X사업부 란귀지 AI팀 부사장은 최근 미국 뉴욕 브루클린에서 진행된 언팩 기자 간담회에서 “AI가 궁극적으로 지향하

는 방향은 앰비언트 인텔리전스”라며 “스마트폰·워치·링·XR(확장현실)기기 등 갤럭시 생태계에서 가전·TV까지 완전히 개인화된 AI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각 사업부에서도 ‘AI 생산 혁신 사무국’을 설치하고 맞춤형 AI 혁신 과제를 발굴해 실행하고 있다. 이 조직은 현장에서 필요한 과제를 발굴

·기획하고 AI를 활용한 문제 해결 및 성과 창출까지 전 과정을 주도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 5월에는 AI 실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AI 크루’ 제도를 신설했다. 약 300명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AI 크루는 사내 AI 붐 조성과 함께 현장의 AI 과제 발굴과 실행·적용을 주도하며 AI 저변확대와 변화관리의 첨병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사는 AI 크루들에게 AI 전문 교육을 지속 지원해 역량 향상 및 성장의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전자는 자체 생성형 AI 모델 개발도 병행 중이다. 지난해 공개한 자체 생성형 AI 모델 ‘삼성 가우스2’는 지난 2023년 공개한 ‘삼성 가우스1’에서 성능과 효율성을 강화한 후속 모델로, 여러 가지 유형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모델로 확장됐다. 삼성 가우스2는 용도에 따라 콤팩트, 밸런스드, 슈퍼프림 등 3종의 모델을 제공한다. 콤팩트 모델은 제품에서 온디바이스(기기 기반) AI로 구동할 수 있도록 최적화된 소형 모델이며, 밸런스드 모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언어·코드를 생성할 수 있는 중형 모델이다. 슈퍼프림 모델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고성능 서비스를 지원하는 거대 모델로, 업무 생산성 향상에 주로 활용할 수 있다.

삼성전자 다바이스경험(DX) 부문은 삼성 가우스2의 코딩 어시스턴트 서비스를 연구개발에 활용하고 있다. 이 서비스는 삼성전자의 고유한 데이터, 코드, 프로세스 등을 학습한 특화 모델을 통해 제품과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코드를 생성해준다. 사내 소프트웨어 개발 환경에 통합되었으며 자연어 대화와 다양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지원해 개발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김호준 기자

삼성전자 사업부별 AI 전략

전사	AI 생산성 혁신 그룹·AI 크루 도입
디지털경험	스마트폰·가전 기반 ‘온디바이스 AI’(DX) 강화, 맞춤형 초연결 생태계 구축
다바이스솔루션	HBM·CXL 등 AI형 반도체 기술 개발(DS) 강화

더존비즈온, AWS·앤스로픽 손잡고 AI 성능 고도화

아마존 베드록·클로드 활용
품질 향상·해외 진출 박차

더존비즈온이 인공지능(AI) 기술 활용과 글로벌 확산을 위해 16일(현지 시간) 아마존웹서비스(AWS), 앤스로픽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에는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 지용구 부사장,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AWS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댄 로젠탈 앤스로픽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성과는 더존비즈온이 해외 진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결과물이다. 지난해 6월 일본 법인을 설립하고 현지시장 직접 공략에 나서는 등 글로벌화에 본격 나선 가운데, 클라우드·AI 분야 글로벌 기업과 협력관계를 형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WS는 완전 관리형 생성형 AI 서비스 '아마존 베드록'으로 원AI 등 더존비즈온의 AI 품질 향상을 지원한다. 특히 아마존 베드록의 'Claude Sonnet Provisioned Throughput' 서비스(일관된 대용량 추론 워크로드



더존비즈온은 16일(현지시간) 미국 맨해튼 재비츠컨벤션센터에서 아마존웹서비스(AWS), 앤스로픽과 AI 기술 활용 및 글로벌 확산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댄 로젠탈 앤스로픽 글로벌 파트너십 부사장, 김용우 더존비즈온 회장, 지용구 부사장, 슬라빅 디미트로비치 AWS 글로벌 AI/ML 테크 총괄.

를 위해 보장된 처리량을 제공)를 받게 됨에 따라 앤스로픽의 차세대 생성형 AI 모델인 '클로드'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앤스로픽 역시 더존비즈온과 협력을 통해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클로드를 기반으로 더존비즈온의 AI 성능 고도화를 지원하고, 향후 더존비즈온의 비즈니스

스 플랫폼 내 연계 서비스도 준비할 예정이다.

더존비즈온 관계자는 "더존비즈온이 보유한 비즈니스 플랫폼 경쟁력과 AI 기술력의 글로벌 가능성이 증명됐다"며 "글로벌 기업들과 협력을 통해 세계 시장에서 통하는 AI 기술 고도화와 내재화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AI로 에듀테크 솔루션 똑딱... 위키피디아 문서가 교육퀴즈로 변신

“인공지능(AI)은 더 이상 유행이 아니라 교실과 인간의 삶 속에 깊이 스며든 일상이다.”

미국 최대 에듀테크 콘퍼런스로 꼽히는 'ISTE 2025'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부터 2일까지 텍사스에서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82개국에 참가한 가운데 507개 기업과 미국 K-12 교사 및 교육 관계자 1만7000여명이 자리했다. 지난해 300여개에 불과했던 콘퍼런스 세션도 1746개로 크게 늘었다. 에듀플러스는 한국디지털교육협회(KEFA)가 발표한 'ISTE LIVE 2025 디브리핑'을 통해 올해 에듀테크 분야의 트렌드를 살펴봤다.

이번 콘퍼런스 세션 아젠다 중 AI는 여전히 가장 많이 다뤄진 키워드였다. AI를 활용한 교육 혁신 방안, AI 기반 교육 정책 방향 등이 참가자의 관심을 모았다. 이어 △전문성 개발 및 교사 연수 △혁신적 학습 환경 △교수설계 및 전략 △창의성과 스토리텔링 △학생 참여 및 주도성 △신기술,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확장현실(XR)

美 에듀테크 콘퍼런스 'ISTE' 82개국 참가 기술 트렌드 짚어 코딩 지식 없이 2시간 내 완성 학생 스스로 도구 제작도 가능 교사 AI역량 강화 중요성 강조

(XR) △온라인 도구, 앱, 자료 △리더십 △학습용 게임, 게임화, e스포츠허 등이 주요 아젠다로 제시됐다.

해외 에듀테크 전문가들이 꼽은 가장 큰 변화는 'AI를 통한 커스텀 에듀테크의 증가'다. AI 사용자가 코딩을 하지 않아도 한두 시간 만에 원하는 에듀테크 솔루션을 제작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이다. 최근에는 하나의 문서를 여러 학습 자료로 재구성해 주는 도구를 개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예를 들면 위키피디아 문서를 마인드맵, 퀴즈, 플래시카드, 팟캐스트 등 다양한 학습자료로 재구성하는 도구를 만든다.

이지연 KEFA 연구원은 “코딩 지식이 없이도 누구나 필요한 도구를 만



들 수 있다”면서 “이제는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넘어서 학생이 직접 도구 자체를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교사의 AI 역량 강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핵심 아젠다 중 하나였다. ISTE 기조연설을 맡은 리차드 쿨라

타 ISTE+ASCD 최고경영자(CEO)는 “교사들이 전문 교사 커뮤니티와 온라인 AI 학습 과정 등 온라인 전문 학습 활동을 통해 AI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2년 이내에 20만명의 교사가 AI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기술을 모델링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

다”고 주장했다. 앞으로는 AI 효율성보다 미래세대가 AI시대에 필요한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이 강조될 것이라는 이야기다.

AI리터러시 교육도 확산할 전망이다. 빠르게 재편되는 노동시장과 AI 중심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AI

리터러시 교육은 필수기 때문이다. AI 가짜뉴스, 딥페이크 성폭력 등 AI로 인한 사회 문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AI리터러시는 AI시대를 살아가는 시민이 갖춰야 할 필수 역량으로 주목되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국제 학업성취도 평가(PISA)에서도 2029년부터 AI리터러시와 미디어 리터러시를 포함할 예정이다. 유네스코(UNESCO)와 유엔개발계획(UNDP) 또한 AI 활용 역량 강화에 나서고 있다.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 선거의 투명성, 윤리 등을 기반으로 교사와 학생의 AI 활용 역량에 초점을 맞춰 나간다.

이 연구원은 “모든 학생에게 AI를 다룰 기회를 보장하고 변화에 안전하게 대비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보편적인 AI리터러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AI리터러시 교육은 최대한 빠르게 도입해 현장에서 수시로 업데이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기존과는 다른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송은기자 running@etnews.com

SBA 로봇사원·AI 비서, 年 10억 아꼐졌다

<서울경제진흥원>

스바봇 위키 등 전 부서 도입
업무 자동화·문서 검색 활용
CEO 아바타로 영상 제작도

서울경제진흥원(SBA)이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전방위적으로 도입해 행정업무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이끌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SBA는 단순 반복업무를 자동화한 '스바봇 위키'를 비롯해 내부 AI 커뮤니티 'AI 탐험대' 운영, 공공기관 최초 AI 최고경영자(CEO) 아바타 도입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활발히 추진 중이다.

SBA는 2022년 7월부터 단순 반복 업무를 자동 처리하는 AI 로봇동료 '스바봇'을 전 부서에 도입해 업무 효율을 높여왔다. 이어 지난달에는 자연어로 질문하면 관련 메뉴얼과 규정을 실시간으로 찾아주는 AI 업무비서 '스바봇 위키'를 도입했다.

과거에는 키워드 입력이나 메뉴 탐색을 통해 직접 관련 문서를 찾고 필요한 내용을 선별해야 했지만 이제는



동료에게 질문하듯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AI 기술 도입 효과는 수치로도 입증됐다. 스바봇과 스바봇 위키로 절감된 연간 업무 시간은 각각 약 4만8000시간, 4680시간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25명의 직원이 일하는 분량으로, 연간 약 10억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하다는 게 내부 분석이다.

SBA는 AI 기술을 대외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고 있다. 5월부터는 김현우 대표의 AI 아바타를 통해 기관 뉴스와 주요 사업을 알리는 영상 콘텐츠를

를 제작·배포 중이다. 이는 공공기관 최초 사례로, 자체 유튜브 채널 '스바TV'와 연계해 매월 20여편의 숏츠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임직원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위해 자발적 커뮤니티 'AI 탐험대'와 실습형 학습공간인 'AI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다.

AI 탐험대는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AI 서비스 체험, 최신 트렌드 공유, 실무 교육, 업무 개선 아이디어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직원들의 높은 참여를 이끌고 있다. AI 실험실은 최신

생성형 AI 서비스를 자유롭게 체험·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은 실제 업무에 AI를 효과적으로 접목하는 실행력을 높이고 있다.

김현우 서울경제진흥원 대표는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표면적 AI 혁신 구호에 그치지 않고, AI 기술을 실제 업무에 도입해 AI 혁신을 주도하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며 "AI 기반의 업무 효율화가 정부 디지털 정책의 실천적 모델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

과기정통부, AI반도체 해외실증사업 착수

더존비즈온·리벨리온 등 선정
국내기술 현지화·사업화 지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내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을 대상으로 'AI 반도체 해외실증 지원' 추경 사업 착수보고회를 17일 서울시 역삼동 SW 마에스트로 센터에서 개최했다.

국내 AI반도체 기업과 AI솔루션 보유 기업이 해외 민간기업·공공기관·지자체 등 다양한 수요처에서 국산 AI반도체를 탑재한 AI서비스를 검증해 레퍼런스를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반기 1차 사업 공모 당시 3.5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는 등 기업들의 지원 확대 요구가 제기되자 과기정통부는 5월 추경을 통해 4개 컨소시엄을 추가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했다. 추경 사업 공모에서도 3.25대1의 경쟁 끝에 4개 컨소시엄을 최종 선정했다.

'서버형' 과제에는 더존비즈온·퓨

리오사AI 컨소시엄이 일본 중소기업 대상 자원·회계 관리 AI 솔루션을 실증한다.

에코피스·리벨리온 컨소시엄은 아랍에미리트(UAE) 중견기업과 연계해 AI 영상 인식 기반 실시간 수상 오염원 탐지 및 자율 정화 솔루션을 실증한다.

'엣지형' 과제에서는 엘비에스테크·디노티시아 컨소시엄이 영국 웨스트미들랜드주 교통국과 연계해 국산 AI 반도체 결합 휠체어 데이터 수집·안전 내비게이션 구축 서비스를 실증한다. 라온피플·모빌린트 컨소시엄은 태국 봉간주 정부와 협력해 홍수·범죄 등을 해결하기 위한 재난·안전·방범 온디바이스 AI 시스템 개발·실증을 진행한다.

각 과제들은 현지 기후·환경·인프라를 반영한 맞춤형 AI솔루션을 설계·실증함으로써 즉각적인 시장 진출과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챗GPT 에이전트, 월 20弗에 AI 비서까지

경쟁사 분석 PPT 주문하면
AI가 웹검색하고 자료 요약
슬라이드까지 알아서 만들어
식당 예약·문서 작성은 기본
결제 등 민감작업엔 허락 구해
챗GPT ‘일하는 AI’로 진화

“화~목요일, 오후 6시~9시 30분,
내가 비는 시간 확인해서 이탈리아 레
스토랑 예약할 수 있는지 확인해줘.”

이 같은 명령을 챗GPT 내에서 직
접 실행할 수 있는 ‘챗GPT 에이전트’
를 오픈AI가 17일(현지시간) 공개했
다. 그간 AI 에이전트는 주로 전문가
나 개발자 전용 도구로 인식돼왔지
만, 이번 출시로 월 20달러를 내는 챗
GPT 플러스 사용자도 능동형 에이전
트를 쓸 수 있게 됐다. 누구나 쉽게 사
용할 수 있는 AI 개인 비서 시대가 본
격 개막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챗GPT 에이전트는 단순히 대화를
나누는 수준을 넘어 자체 가상 컴퓨터
환경에서 브라우저 탐색과 문서 작
성, 캘린더·이메일 연동 같은 실제 작
업을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식당 예약을 요청하면 에이전트
는 사용자의 구글 캘린더를 조회한 뒤
온라인 예약 플랫폼에 접속해 식당을
검색하고 직접 입력과 클릭을 수행해
예약 가능한 시간대를 제시한다.

자료 분석과 문서 작성도 가능하



챗GPT 에이전트 개요

이용 대상	챗GPT 플러스·프로 사용자
주요 기능	사용자 일정 관리, 이메일 확인, 웹사이트 탐색, 데이터 입력, 자료 검색·요약, 문서 작성 및 편집, 프레젠테이션 생성 등
보안 조치	카드 정보 입력 등 민감 작업 전 사용자 승인, 고위험 작업(금융·법률 등) 제한, 이메일 발송 전 사용자 승인

AI 에이전트 시장 규모 (단위=억달러)
*추정치 기준, 자료=마켓앤드마켓

78.4	526.2
2025년	2030년

샘 올트먼 오픈AI CEO

다. 시연 영상에서는 챗GPT 에이전
트가 엑셀 파일 속 재무 데이터를 분석
한 뒤 부족한 분기 정보를 채우기 위해
연간 재무 보고서를 검색해 요약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줬다. 생성된 자
료는 엑셀, 프레젠테이션 파일로 내려
받아 바로 편집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내일 아침 미팅 전에 경쟁사 3곳을
분석해 프레젠테이션을 만들어줘”라
는 명령을 입력하면 웹 검색과 자료 요
약, 슬라이드 생성까지 전 과정을 에
이전트가 수행한다.

이번 기능은 오픈AI가 올해 초 선
보인 ‘오퍼레이터’와 ‘답리서치’를 통
합한 형태다. 오퍼레이터는 웹 브라우

저상에서 실제로 클릭·입력·스크롤
등 시각적인 작업을 수행하고, 답리서
치는 웹 기반 정보를 논리적으로 추론
하고 인용까지 포함해 요약해주는 기
능이다. 이번 통합으로 챗GPT는 단
순한 문답을 넘어 실제로 ‘일하는’ 존
재로 진화했다.

무엇보다 챗GPT 에이전트는 월
20달러 수준의 일반 구독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금
까지 AI 에이전트는 월 수백 달러의
요금을 내야 하거나 기업 전용 또는 개
발자용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
(API)로 제공돼 일반인이 직접 쓰기
어려웠다. 오픈AI의 이번 공개는 AI

에이전트가 전문가용 도구에서 일상
적인 디지털 비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보안과 안전성도 고려됐다. 챗
GPT 에이전트는 결제나 양식 제출과
같은 민감한 작업을 하기 전에 반드시
사용자에게 허락을 구하고 금융 거래
나 법률 자문처럼 고위험 작업은 수행
하지 않는다. 악의적 명령이나 상충하
는 지시를 인식해 거부할 수 있으며 이
메일 전송 같은 중요한 행동은 단계별
로 사용자 승인을 받는다.

AI 에이전트 시장은 업무 자동화,
생산성 향상, 개인화 서비스의 수요
증가에 따라 거대한 수익 가능성이 있
는 분야다. 구글은 제미니 AI 모델을
기반으로 웹 브라우저 내에서 다단계
작업을 자동화하는 ‘프로젝트 마리
너’를 테스트하고 있다. 현재는 전문
가 전용인 월 249달러 플랜을 통해 제
한적으로 제공되고 있다.

앤스로픽도 클로드 모델을 기반으
로 데스크톱을 제어할 수 있는 에이전
트 API를 선보인 바 있다. 이 기능은
이메일 작성, 문서 편집, 일정 예약 등
을 자율적으로 수행하는 시연을 통해
공개됐다. 마이크로소프트(MS)는
‘코파일럿’ 브랜드 아래 워드, 엑셀 등
생산성 도구에 AI를 통합하며 기업
워크플로 전반을 자동화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2030년까지 전체 소
프트웨어 시장 중 60%가 AI 에이전
트를 기반으로 재편될 수 있다고 전망
한 바 있다. 실리콘밸리 원호점 특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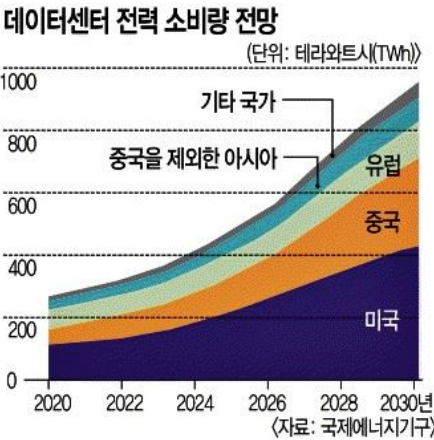
AI 데이터센터를 위하여... ‘물·불’ 안 가리는 빅테크

구글·AWS 등 발전소·원전 투자
“전력 인프라, 전략 자산으로 부상”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가동에 필요한 전력 확보를 위해 빅테크 기업들이 저마다 에너지원을 다각화하고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등 재생에너지, 원전, 소형모듈원전(SMR), 수소 등 분야도 다양하다. 과거에는 전력 대부분을 직접 구매하거나 전용 발전소와 계약을 맺고 공급받았지만, 최근에는 친환경 에너지 비중을 늘리는 추세다.

구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펜실베이니아주에 위치한 수력발전소 2곳을 현대화하는 데 30억 달러(약 4조1600억 원)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계약으로 구글은 펜실베이니아주의 수력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20년간 공급받게 된다. 전력량은 최대 3기가와트(GW)로, 원자력 발전소 3기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빅테크 기업들이 전력 인프라 구축에 사활을 거는 건 AI 데이터센터가 ‘전기 먹는 하마’이기 때문이다. 골드만삭스



는 데이터센터의 전력 수요가 2023년 대비 2030년에 16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주요 기관들은 AI 시대 전환기를 맞아 데이터센터 전력 수요가 이미 기존 IT 영역 대비 훨씬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향후 5~10년 내에 정점을 찍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해 해외 투자에 나서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아마존웹서비스(AWS)는 호주 시드니에서 운영 중인 데이터 센터를 확장하기 위해 호주 내 태양광 발전소에 투자하고 나섰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을

위한 투자도 활발하다. 구글은 지난해 미국 SMR 개발 업체 카이로스파워와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구글이 2030년을 목표로 건설 중인 카이로스파워의 첫 번째 SMR에 투자하고, 이 원전이 가동을 시작하면 500MW 규모의 전력을 구매한다는 내용이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아마존 등은 원전 기업과 손잡는 등 에너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MS는 지난해 미 최대 원전 운영사 콘스텔레이션과 펜실베이니아주 스리마일섬 원전 대상으로 전력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스리마일섬 원전은 해체 작업을 진행 중이었지만, MS가 20년간 전력을 해당 원전에서 구매하기로 하면서 재가동 절차에 돌입했다.

김선교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원은 17일 “AI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전 세계 전력 수요가 구조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전력 인프라는 단순한 에너지 문제가 아닌 산업 경쟁력과 국가 안보를 좌우할 전략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무한 가능성의 양자컴퓨팅, AI와 결합해 새 시대 열 것”

🔍 Zoom In 김정상 美 듀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

“과거엔 TV와 컴퓨터, 전화가 전혀 다른 산업이었는데, 지금은 한 회사가 사업을 합니다. 광섬유 개발로 산업에서 파괴적 혁신이 일어난 경우인데 양자역학이 앞으로 그렇게 만들 겁니다.”

김정상 미국 듀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는 17일 경북 경주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미국 벨연구소 연구원을 거쳐 2004년부터 듀크대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2015년 현지에서 양자컴퓨터 스타트업 아이온큐를 공동 창업했다. 2023년 미공군연구소(AFRL)로부터 차세대 양자컴퓨터를 주문받은 이 회사는 양자역학을 사용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운영체제 등을 자체 개발하며 클라우드 서비스 진출도 노리고 있다. 현재 시가총액은 100억달러(약 13조 9000억원) 안팎으로, 김 교수는 최고기술책임자(CTO)를 맡고 있다.

그는 “혁신적인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산업은 파괴적인 혁신이 일어나고, 산업이 통합되기도 하면서 산업계도 크게 바뀐다”며 “1980년대 세계에서 시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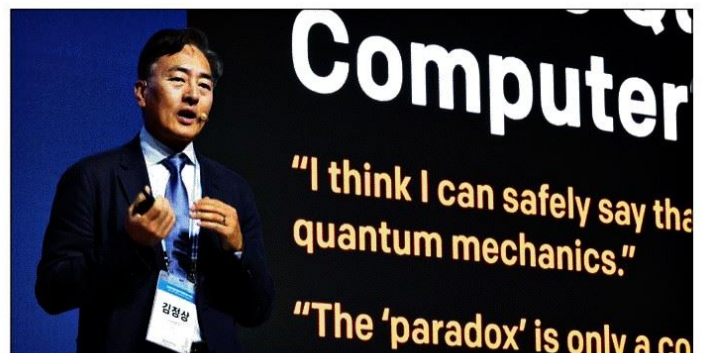
이 큰 회사는 엑스, 스탠더드오일, 모빌 등 에너지 기업이었는데, 올해엔 엔비디아, TSMC 등 글로벌 테크놀로지 서플라이 체인에 있는 회사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양자컴 스타트업 아이온큐 창업 2진법 한계 뛰어넘는 ‘양자 중첩’

“양자 AI가 산업 판도 바꿀 것
리스크 떠안고 과감히 도전해야”

그는 양자역학에 대해 0과 1로 정보가 두 가지에 그치는 디지털 현실에서 나아가 이 두 숫자가 공존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현재 컴퓨터상에선 2진법으로만 세상을 표현할 수 있는데, 양자역학의 중첩상태를 적용하면 온 우주의 원자 개수보다 많은 상태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며 “이 어려운 이야기가 과학계에서 계속 증명됐고, 이걸 기술에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고 소개했다.

김 교수는 “양자역학을 적용하면 컴



김정상 미국 듀크대 컴퓨터공학과 교수가 17일 대한상의 하계포럼에서 ‘양자컴퓨터와 첨단기술의 미래’를 주제로 강연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제공

퓨터와 전화가 다른 산업이라고 생각하던 시대에서 하나의 산업으로 변한 것처럼 컴퓨터는 물론 자동차,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가 파괴적 혁신을 통해 재편될 것”이라며 “특히 인공지능(AI)과 양자역학이 합쳐지면 새로운 기술이 탄생하며 모든 판도를 바꿀 수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과학적인 발견이 있고, 기술적인 개발이 따라오면 공급망이 구성되며 산업으로의 도약으로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양자역학의 산업화엔 시간이 조금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새 기술이 나오면 거품이 생겼다가 꺼지면서 무너지게 되는데, 고통

스럽겠지만 잘 되는 곳엔 기술과 자본이 축적되는 과정을 반복한다”며 “AI는 이런 관점에서 성장으로 접어든 것으로 보이나 양자는 아직 시기가 바로 오진 않았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기술이 등장하면, 돌도 발전하고 그렇게 되면 발전 속도가 가속화하면서 세상이 빨리 변하는데, 이런 시대에 가담하기 위해선 리스크를 과감히 떠안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중요하다”며 “기업인이 이런 트렌드를 받아들이려면 기술도 기회가 더 많이 그리고 더 빨리 찾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김재후 기자

‘한국판 아마존’ 쿠팡, 한국판 AWS도 만든다

(아마존웹서비스)



아마존 성장공식 벤치마크

통합물류·커머스 이어 AI 클라우드
쿠팡, 미국·인도 전문가 채용 나서
“데이터센터 수도권에 있어 유리”
전문가 “수익 내려면 시간 걸릴 것”

쿠팡이 인공지능(AI) 클라우드 시장에 본격적으로 뛰어든다. 이커머스 기업에서 글로벌 최대 정보기술(IT) 기업으로 성장한 아마존의 길을 그대로 답습했다. 물류·유통 현장에서 쌓은 데이터 처리 능력을 바탕으로 IT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는 목표로 풀이된다. 하지만 기존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들이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쿠팡의 도전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쿠팡은 최근 미국, 인도 등지에서 AI·클라우드·빅데이터 분야 전문가 채용을 확대하

고 있다. 국내에서도 AI 클라우드 관련 엔지니어를 모집 중이다. 채용 공고는 “아마존웹서비스(AWS)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경험 보유자를 우대한다”고 명시했다.

앞서 지난 2일에는 AI 기반 클라우드 서비스를 ‘쿠팡 인텔리전트 클라우드(CIC)’로 리브랜딩하고 새로운 로고를 공개했다.

그동안 내부 서비스와 외부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에 제공해온 AI 인프라를 확장해 독립 사업으로 클라우드 서비스를 키우기 위한 목적이다.

유통·물류부터 콘텐츠, 클라우드까지 아우르는 사업 확장 방식은 아마존과 꼭 닮았다. 그간 아마존의 풀필먼트(통합 물류) 서비스 등을 차용하며 성장했던 쿠팡은 AWS처럼 클라우드 사업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삼을 전망이다. AWS는 아마존의 전체 영업이익의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이다.

쿠팡이 내세우는 강점은 대규모 데이터센터가 수도권에 위치해 있다는 점

다. 쿠팡 측은 “대용량 전력 확보와 물리 보안 체계 등을 완벽해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최종 수요자와의 물리적 거리가 짧아 서비스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쿠팡은 당분간 국내 연구기관·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한 클라우드 사업을 강화할 계획인데, 이를 위해 지난달 정부가 공모한 ‘GPU 확보·구축·운용지원 사업’에 지원했다. 네이버, 카카오, NHH 등 국내 주요 클라우드 업체들이 신청한 1조5000억원 규모 사업이다. 선정되면 1만개 규모 GPU를 확보해 AI 연구개발 등에 사용할 수 있다.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기존 국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CSP)들과 달리 쿠팡은 커머스 기반의 AI 데이터 역량이라는 무기를 지녔다”며 “향후 민간에 빠르게 침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쿠팡은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손잡고 스타트업 대상 클라우드 할인, 공동 AI 솔루션 개발 등에 나서고

있는데, 이는 AWS가 설립 초기 AI 스타트업을 공략했던 전략과 유사하다”고 덧붙였다.

쿠팡이 유통과 물류에서 단기간에 성과를 냈지만 클라우드에서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도 나온다. 기존 사업자들이 이미 시장을 선점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카날리스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클라우드 인프라 시장 점유율은 AWS(33%), MS(24%), 구글 클라우드(11%) 순이다. 국내에서는 AWS의 점유율이 60%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과 교수는 “쿠팡의 클라우드 사업이 아마존처럼 성공하려면 추가 데이터센터 구축 등에 막대한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선발 주자들보다 우위에 이르기 위해서는 가격 경쟁력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수익을 거두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유림 기자

noh.yurim@joongang.co.kr

케이뱅크, '클라우드 분산백업센터' 구축

보안성·안정성 강화

케이뱅크가 금융권 최초로 소산백업 센터를 클라우드로 전환해 차세대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고 17일 밝혔다.

소산백업센터는 재난이나 재해 등 비상 상황에서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운영하는 백업 전용 데이터 분리보관시설이다. 은행 정보기술(IT) 인프라의 핵심 안전망으로, 주 재해복구 데이터센터와 물리적으로 분리된 외부 지역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다.

기존 은행권 백업 체계는 데이터를 자기 테이프에 저장하는 테이프 백업(PTL) 방식으로 이관한 뒤, 소산백업 센터 내 내화금고에 물리적으로 보관하

는 구조로 운영됐다.

하지만 자기 테이프는 온도·습도 등 환경 변화나 시간 경과에 따라 변질 가능성이 높다. 데이터 손상 우려도 커 보관 안정성 측면에서 한계가 뚜렷하다. 물리적 인프라 유지 비용과 백업 관리 인력의 비효율성 등 여러 제약도 존재한다.

케이뱅크는 소산백업센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며 테이프 백업 방식의 한계를 뛰어넘고 보안성과 안정성을 높인 차세대 백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백업 데이터를 물리적 장소나 장비가 아닌 클라우드 센터에 전송해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게 됐다. 사고 발생 시에도 안정적인 대응이 가능하다. 유진아 기자

현대차, 로봇틱스 상용화 속도 연내 만능봇 ‘모베드’ 내놓는다

엑스블 솔더 이은 두번째 모델
개발한지 4년 만에 양산 앞뒤
“쓸만한, 살만한 기술이 돼야”

현대자동차가 연말께 첨단 로봇틱스 기술을 적용한 소형 모빌리티 플랫폼인 ‘모베드’ 양산 제품을 내놓는다. 첫 모베드를 공개한 지 4년 만에 내놓은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이는 로봇인 ‘엑스블 솔더’에 이어 현대차 로봇틱스랩이 개발한 두 번째 상용화 모델이다.

현동진 현대차 로봇틱스랩장(상무)은 17일 제주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년 한국경제인협회 경영자 제주하계 포럼’에서 “올해 말 두 번째 모베드를 출시할 예정”이라며 “모베드에는 그리퍼(gripper), 자율주행 기능도 내장돼 있어 다양한 산업과 생활 서비스 분야에서 쓰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한 기술 자랑이 아니라 고객이 제품을 쓸 수 있는 가격과 품질, 서비스를 고민 중”이라고 했다.

2021년 말 현대차가 처음 공개한 모베드(사진)는 스케이트보드와 비슷한 형태의 이동 로봇이다. 납작한 직육면체 모양의 몸체에 커다란 바퀴 네 개를 장착해 기어올린 도로에서도 수평을

유지하는 게 특징이다. 모베드는 어떤 장치를 위에 올리



느냐에 따라 다양한 용도로 쓸 수 있다. 1인용 모빌리티로 활용하는 가능성도 거론된다. 연말께 나오는 모베드는 단순히 물건을 지정한 곳으로 옮기는 수준을 넘어 스스로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기능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현상무는 현대차의 자율주행 전략과 관련해선 “라이다, 레이더, 카메라 등 다양한 센서의 조합으로 자율주행을 구현하는 ‘센서 모달리티’에 방점을 두고 있다”며 “살 만한 가격에 매우 쓸 만한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단순 이동수단이 아니라 사용자 관점에서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로봇틱스를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가 아니라 기술과 서비스의 융합’이라고 정의했다. 현 상무는 “로봇틱스는 ‘비싸지만 좋은 기술’이 아니라 ‘쓸 만하고 살 수 있는 기술’이어야 한다”며 “제품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품질 관리, 유지·보수, 애프터서비스(AS)까지 고려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김채연 기자

“이동·작업·재배… 피지컬 AI로 농업 대전환”

대동 ‘농업 3대 AI’ 청사진 공개
 생산성 높인 농기계·로봇 등 개발
 내년 4단계 자율주행 트랙터 출시

대동그룹이 내년 상반기 4단계 자율주행 트랙터를 선보이는 등 국내 농업 분야에 피지컬 인공지능(AI) 시대를 예고했다. ‘국내 농업의 AI 대전환’을 통해 기후변화, 고령화 등 농업 위기 극복은 물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한다는 계획이다.

17일 대동의 AI 로봇 소프트웨어 전문 자회사 대동에이아이랩은 서울 서초 대동 사옥에서 미디어간담회를 열고 ‘이동·작업·재배’를 핵심으로 하는 대동의 ‘농업 3대 AI’에 대한 청사진을 공개했다.

최준기 대동에이아이랩 대표는 “AI 농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판단해 농작업을 수행하고, 재배 AI가 생육을 예측해 최적의 전략을 제안하는 ‘AI 미래농업’ 구현을 통해 농업 AI 전문기업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선 정형화되지 않은 논밭이나 과수원



대동에서 개발한 농업용 로봇팔이 딸기를 수확하고 있다.

과 같은 야외 환경에서 농기계와 로봇이 스스로 주행 경로를 판단하고 최적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이동 AI’ 개발에 나선다. 논밭 경계 인식이나 장애물 대응에 한계가 있는 기존 위치확인시스템(GPS)을 기반으로 한 자율 주행이 아닌 비전 기반 AI 기술 개발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또 이를 활용한 4단계 자율주행 트랙터를 내년 상반기 출시한다. 4단계는 장애물을 인식해 정지, 회피까지 가능한 단계다.

사람의 수작업을 농기계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농업 피지컬 AI 기술인 ‘작업 AI’ 개발도 진행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서 대동은 로봇팔로 딸기를 수확하고 잎을 제거하는 작업을 시연하기도 했다. 대동은 기계화율이 100%에 가까운 논농사 대비 밭농사는 67%, 과수원은 31%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보고 농업 효율성을 위해 로봇화 추진에 나선다.

여기에 숙련된 농부의 경험과 지식을 AI로 구현해 누구나 안정적인 작물 재배를 돕는 ‘재배 AI’를 통해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높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위성, 드론, 스마트 농기계 등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물 생육을 예측하고 그에 맞는 맞춤형 재배 전략을 제공한다. 노현섭 기자

청소년 마이데이터 12월 시행

**당국, 금융사에 일정 공유
자산정보 조화·전송 가능**

청소년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12월부터 시행된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도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본인 금융정보를 조화·전송할 수 있다. 이에 맞춰 금융권은 신규 고객층이 될 청소년을 겨냥, 관련 상품 개발에 나섰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 당국이 청소년 마이데이터 서비스 개발 일정을 금융사에 공유하고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에 들어갔다. 정보제공기관인 은행·카드사·핀테크 등은 오는 11월까지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12월부터 서비스를 개시하는 일정이다.

청소년 마이데이터는 지난 6월 전면 시행된 마이데이터 2.0 체계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다. 디지털 금융 소외계층에 대한 포용 강화와 직결되는 것으로, 청소년도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전송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청소년은 개인

정보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금융 생활 전반에 이해도도 높아질 것이라 기대가 크다.

법적 기반은 올해 초 마련됐다.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마이데이터 이용 가능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4세 이상으로 확대됐다. 다만 청소년 정보의 무분별한 활용을 막기 위해 제공 가능한 정보는 엄격히 제한된다. 조화 가능한 항목은 예금성 계좌 내역, 체크카드, 선불·직불 전자지급수단 등이다. 신용카드, 대출 상품 등은 조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사는 청소년의 정보 전송 요구가 있더라도 제한 항목을 자동으로 걸러내는 방식으로 응답해야 하며, 이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진행하고 있다.

금융권은 마이데이터 확대로 사용자 저변이 넓혀지는 만큼 용돈 관리 등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금융보안원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2.0 환경에서 청소년이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초점을 맞춰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두호기자

walnut_park@etnews.com

“실제 생산 현장·일상 속 AI 적용 확대해야”

김유철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

이미 인간 삶에 깊숙이 침투한 인공지능(AI)은 일하는 방식마저 바꾸고 있다. 이로 인해 업무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면서 AI 기술력 차이는 국가 경쟁력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 점차 치열해지는 ‘AI 전쟁’에서 우위를 차지하려면 실제 산업 현장과 일상에서 AI 적용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도권 확보를 위한 글로벌 기업의 경쟁이 매우 치열하다”고 현 상황을 짚었다. 이어 “역량을 갖춘 기업에 집중 지원을 해

김유철(사진) LG AI연구원 전략부문장은 17일 국민일보가 주최한 ‘2025 국민 공공정책포럼’에서 “생성형 AI를 넘어 에이전틱 AI 시대 주

더 좋은 AI 모델을 만들어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오픈 소스화(개방형)하고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제공해 한국의 AI 생태계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문장은 한국의 AI 모델이 글로벌 시장에 확산하려면 먼저 산업과 일상에서의 적용 사례가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LG AI연구원은 실제 산업 현장에 AI를 적용하는 데 주력하고 있

다”면서 여러 사례를 소개했다.

지난해 공개한 ‘엑사원 패스(EXAONE Path)’는 일반적으로 2주가량 걸리는 암세포 유전자 검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해 개인 맞춤형 항암 치료제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암 환자의 병리 조직 이미지와 DNA 세포를 학습한 엑사원 패스가 암세포 이미지를 보고 DNA 변이를 찾아내는 식이다.

일상에서 쉽게 볼 수 있는 AI 챗봇이

나 AI 보이스봇 등도 생산성을 크게 끌어올렸다. 반복적이고 단순한 문의를 AI 챗봇이 해결해주는 사이 인간 상담사는 복잡한 민원이나 감정 조율이 필요한 상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다. 김 부문장은 보다 많은 사람의 AI 접근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산업 현장에 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일반인에 대한 AI 교육이 더 필요하다. 일반인은 전문가처럼, 전문가는 더 전문가답게 각자의 능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LG AI연구원도 더 연구하고 사례를 창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진영 기자 young@kmib.co.kr

LG화학, 신성장동력 ‘POE’ 생산량 줄인다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

글로벌 침체·中 저가공세 ‘이중고’
4공장 사실상 장기 셧다운 수순
中, 5년후 400만톤 이상 생산 추정
“빠르면 2년내 고내열 분야도 추월”

LG화학이 신성장 사업으로 키우던 폴리올레핀 엘라스토머(POE)의 생산량을 줄인다. 고기능소재까지도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산 저가 공세라는 ‘이중고’ 압박을 피하지 못했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최근 충남 대산 단지에서 운영 중인 POE 4공장의 가동을 중단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현장 직원들에게 공유했다. 다음 주부터는 POE 설비 내 잔류 원료와 제품 등 제거 작업부터 시작할 계획이다.

LG화학은 POE 1~3공장은 그대로

운영하되 4공장만 가동을 1년 이상 중단할 계획이다. 그때까지 글로벌 수요와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재가동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로선 사실상 장기 셧다운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이에 대해 LG화학 관계자는 “시황 변동에 따라 일부 라인의 생산량을 조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LG화학은 석유화학 부문의 수익성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개발한 고유촉매(메탈로센) 기반으로 POE를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왔다. 기존에는 대산공장 내 연간 28만톤 규모의 1~3공장을 운영했다.

여기에 POE 4공장은 2021년부터 약 2800억원을 투자해 연 10만톤 규모로 증설을 추진했다. 지난해 말부터는 상업가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신규공장이 다. 신설한 지 불과 1년여 만에 불이 꺼

지게 됐다.

POE는 유연성과 내열성을 갖춰 자동차 내외장재, 방음재, 전선과 케이블 피복, 필름, 접착제, 폼 등 다양한 산업에서 사용되는 고부가가치 소재다. 유연성과 내열성뿐 아니라 충격 흡수, 고탄성, 열융합성 등을 갖춰 석화업계의 고부가 신성장 동력으로 각광받았다.

이 제품은 기존에는 엑손모빌, 다우, 미쓰이, 사빅 등 일부 글로벌 화학업체들만 생산했다. 하지만 완화화학, 시노펙 등 중국 업체들이 가격경쟁력을 앞세워 시장에 진입하면서 공급과잉 조짐이 보이고 있다.

중국의 POE 생산능력은 2000년대 초반만 해도 0톤이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증설로 올해 약 90톤으로 늘었고 2030년에는 400만톤 이상을 생산할 것으로 업계에서는 추정하고 있다.

엑손모빌이나 LG화학 등만 가능한

고내열과 고투명 POE까지 중국이 따라올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중국 국유기업과 민간 기업들이 공동으로 국가 투자를 기반으로 메탈로센 촉매 등의 핵심기술을 연구하고 있는 만큼 빠르면 2년 내에 따라 잡힐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태양광 산업이 집중된 중국 내 주요 모듈 제조사들도 자국산 POE를 우선 채택하는 경향이 강한 데다, 경기 침체로 수요 증가도 제한적인 상황이다. 시장조사업체 캠페넬리스트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중국의 POE 평균 가격은 전분기 대비 약 4.1% 하락했다.

롯데케미칼도 최근 POE 사업을 중단했다. 여수공장에서 소규모 생산까지 성공했지만, 글로벌 수요 침체와 중국의 저가 공세까지 겹치자 대규모 증설 절차 전에 결단을 내린 바 있다.

박한나 기자 park27@dt.co.kr

LG유플 “다양한 AI서비스 결합해 쓰세요”

신개념 구독 ‘유독픽 AI’ 출시

LG유플러스가 국내 최초로 다양한 인공지능(AI) 서비스를 결합해 쓸 수 있는 구독 서비스 ‘유독픽 AI(사진)’를 출시한다.

17일 LG유플러스는 대화형 검색 AI 3종과 특화 AI 서비스 7종 중 고객이 원하는 AI 서비스만 골라 합리적 가격에 이용할 수 있는 신개념 구독형 상품 ‘유독픽 AI’를 22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대화형 검색 AI 3종은 출처와 함께 신뢰도 높은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 ‘라이너(Liner)’, 다국어 자료를 한국어로 쉽게 검색할 수 있는 ‘펠로(Felo)’, 그리고 챗GPT, 제미니, 클로드 등 20여종의 대형 언어모델(LLM)을 통합 제공하는 ‘우수AI’다.

특화 AI 서비스로는 그래픽 및 콘텐츠 디자인 지원 서비스 ‘캔바(Canva)’, 간편한 영상 편집과 SNS 공유 기능을 갖춘 ‘키네마스터’, 영어 회화와 AI 발음 코칭을 지원하는 ‘플랭’, 이력서부터 면접까지 AI 코칭을 제공하는 ‘코멘



토’, 국어 학습을 돕는 ‘러니’, 과학 뉴스와 특목고·영재고 모의 면접까지 지원하는 ‘과학동아AiR’, 그리고 수학 문제 추천 및 실시간 분석으로 학습을 지원하는 ‘수학대왕’ 등을 갖췄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고객들은 이 중 대화형 검색 AI 1종과 캔바를 뺀 6종의 특화 AI 서비스 중 매달 한 가지를 골라 사용할 수 있다. 구독료는 기본 월 1만9,800원이지만 9월 말까지 가입 고객에게는 24개월 동안 9,900원으로 반값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 또 라이너와 캔바 서비스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고정형 상품도 제공되며 프로모션 기간 동안 월 1만1,900원에 가입할 수 있다.

김진욱 기자

디지털타임스

2025년 7월 18일 금요일 010면 정보통신

LG유플, 비핵심 사업 정리… AI 일기앱 ‘답다’ 종료

AX 중심 ‘선택과 집중’ 핵심기술 고도화 투자

LG유플러스가 일기를 쓰면 답장을 해주는 마음관리 플랫폼 ‘답다’ 애플리케이션 운영을 종료한다. 지난해 12월 흥범식 대표 취임 이후 신속히 비핵심 사업 정리에 나서는 모습이다.

17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내달 18일 감정기록 기반 일기 답다 앱 운영을 중단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스포츠팬 플랫폼 ‘스포키’, ‘아이돌플러스’, 홈스쿨링 서비스 ‘U+초등나라’ 등 일부 플랫폼 서비스를 종료했다. 스마트팩토리, 화물중개, 로봇 사업 등도 정리했다. 이번 답다 서비스 종료도 이같은 기조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답다는 2023년 9월 출시 이후 ‘말 못할 고민도 털어놓을 수 있는 나만의 기록 공간’을 표방하며 이용자들의 일상을 감성 중심으로 기록해주는 앱으로 주목받았다. 지난 1월 말 기준 가입자

는 8만여명, 누적 일기 숫자는 약 49만 개에 달했다. 답다 운영팀은 공지문에서 “올해 8월을 마지막으로 그동안의 여정을 마무리하게 됐다”며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은 아쉽지만 따뜻한 위로가 되는 공간이 되고자 한 마음만은 진심이었다”고 밝혔다.

홍 대표는 지난달 열린 이 회사 타운홀 미팅에서 “경쟁사를 앞서나가는 구조적 경쟁력으로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위닝(이기는) R&D’ 전략을 바탕으로, 누구도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기술적

해자(적의 접근을 막기 위해 성 주변에 판 연못)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위닝 R&D는 중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기술 분야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이다. 단기 수익성이 낮거나 시장성이 제한적인 서비스를 정리하고 장기적으로 성과 창출이 가능한 분야와 핵심 기술 고도화에 자원을 집중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비스 종료 이후에는 앱 접속이 불가하며 백업 기능을 통해 이용자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다. 김나인 기자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가대표 AI, 세계 톱 수준 목표 고품질 데이터 확보 정부가 지원

**배경훈 과기정통부 장관 취임
“R&D 생태계 복원 적극 추진”**

“인공지능(AI)으로 대표되는 첨단 과학기술의 거대한 물결이 산업과 경제를 넘어 사회 전반에 스며들고 있다. 우리가 전략을 어떻게 설계하고 대응하느냐에 따라 국가 미래가 좌우될 것이다.”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인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해 튼튼한 AI 생태계를 갖추고 AI를 누구나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더 이상 선진국을 따라가는 방식으로는 지속적인 성장이 어렵다며 AI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산업·행정·사회 전반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배 장관은 “AI 고속도로를 구축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6호기, 국가AI컴퓨팅센터 등 세계 수준의 기반을 조속

히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AI 파운데이션 모델 확보를 지원하고 고품질의 학습 데이터를 확보·활용하기 위한 국가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내 대표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민간 기업, 많은 국민이 써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목표 성능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설정하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배 장관은 단순히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만 ‘소버린 AI’ 구축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 AI 반도체 전략과 관련해서는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차세대 기술을 빠르게 확보하고 초기 시장 형성을 지원해 대한민국 AI 반도체 산업 생태계를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체계 개편에 대해서는 “폐지된 풀뿌리형 기초 연구를 복원하겠다”면서 “R&D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폐지를 완수하기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규식 기자